

우주여행 가이드... 감정노동상담사... VR전문가... 동물매개치료사

시가 뺏은 일자리 너머 4차혁명시대 '희망직종' 뜬다

기업&일자리가 **희망**이다

㉓ 제3의 직업이 뜬다

제조·서비스 200만 일자리 위기
의사 대신 인공지능이 치료법 제시
의료·복지, IT·AI 유망직업 대두
학생 적성 등 고려 맞춤 지원 필요

“인공지능(AI)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2030년까지 일본에서만 735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슈퍼마켓 계산원, 제조업 공장 직원 등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기술 진보에 따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직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에서 80만명, 서비스업에서 1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음식점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가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병원도 들어섰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기존 직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새롭게 생겨날 직업도 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복지와 IT·AI 등에 관련된 전문직이 유망 직업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서비스업종에서는 사람의 감정처럼 기계가 맡기 어려운 비정형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 공공조달지도사, 우주여행 가이드, 개인 콘텐츠 큐레이터, 인체 디자이너, 범죄예방환경전문가, 동물매개치료사, 감정노동상담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개최한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약 10년 뒤 떠오를 유망 직업으로 공공조달지도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등을 꼽았다. 공공조달지도사는 정부의 필요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달·구매와 관련한 계획부터 조사, 연구,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환자들에게 의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이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환

〈2025 교육부 유망직업전망 순위〉		〈영국정부 조사 2030 유망직업〉	
순위	직종	직종	직종
1	판검사	날씨 변경 경찰	
2	치과의사	가상 법률가	
3	의사	교실에서의 아바타 관리	
4	생명과학연구원	대안 자동차 개발자	
5	변리사	집중보도자	
6	변호사	쓰레기 데이터 관리자	
7	IT컨설턴트	가상 혼란 조정자	
8	컴퓨터보안전문가	시간 브로커	
9	인사/노무전문가	시간은행 중개자	
10	도시계획가	브랜드 관리자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연구소(The Future Laboratory)

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반영해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을 선보인 IT업계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태동되고 있다.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작업 인력은 감소하는 대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의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 유망 직업으로 AI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VR 전문가, 착용로봇 개발자 등을 꼽았다.

AI 전문가는 뇌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의사결정 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맡는다. 이미 구글·애플·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 사이에서는 AI 전문가 확보를 위한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빅데이터를 수집·저장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도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무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해야 하기에 통계학적 지식과 인문사회학적 사고를 겸비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유망 직종 인재를 육성해야 할 교육 분야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10~20년 뒤 구직에 나설 미래 인재들은 현재 초·중학생들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준비해야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예산지원이 들쭉날쭉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재 육성 및 지역별 산업구조와 인프라에 따른 ‘지역 맞춤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황순옥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교육 팀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등 교육 선진국에선 지역별 행정기관 장이 교육장을 임명하고, 예산도 지원해 교육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각 시도와 각 교육청이 제각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의 장인 교육장을 임명하지만, 시도

별의 장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교육장을 임명해 지역의 산업분포와 인프라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교육의 쏠림 현상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교육에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로봇과 AI 등 IT 업계 직종이 유망하긴 하지만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황 팀장은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지만, 어른들은 자녀가 특별히 고생하지 않는 직업을 원할 뿐”이라며 “아이들이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스스로 원하는 직업을 찾았을 때 행복감이 높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박인용·오세성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민 자영업 '음식점·주점' 타격

부정청탁 금지법,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식점과 주점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1~11월 감소 폭(-2.4%)보다도 0.7%포인트(p) 더 크다.

12월 한 달이 더 남았지만 이미 1~11월 감소 폭이 큰 탓에 지난해 음식·주점업 생산은 2015년(-1.8%), 2016년(-0.8%)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음식·주점업 경기 약화의 중심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기를 펴지 못했던 소비

가 있다.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1~11월 증가 폭(4.5%)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 이면에는 경기 회복세에도 여전히 차가운 채감 경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청년실업률도 고공행진을 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밥 소비 풍조가 음식·주점업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직장 회사 문화가 점차 간소화하고 편익점 간편식이나 가정식 문화가 더 세련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음식·주점업을 찾는 발걸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CLFA

“벌어도 벌어도
부족한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은행 대출이 힘드신가요?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시나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생계형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대부금융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꿈을 대부금융에서 찾아드립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TEL 02) 3487-5800 www.clfa.or.kr